

마르지 않는 눈물

온 국민이 울었다.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9일 추모객들은 흐느낌, 오열, 통곡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. 추모객 432만명이 이날까지 봉하마을을 비롯해 전국 300여곳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. /연합뉴스

국민은 울면서 그를 보냈다



영면 하소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노제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연이 열리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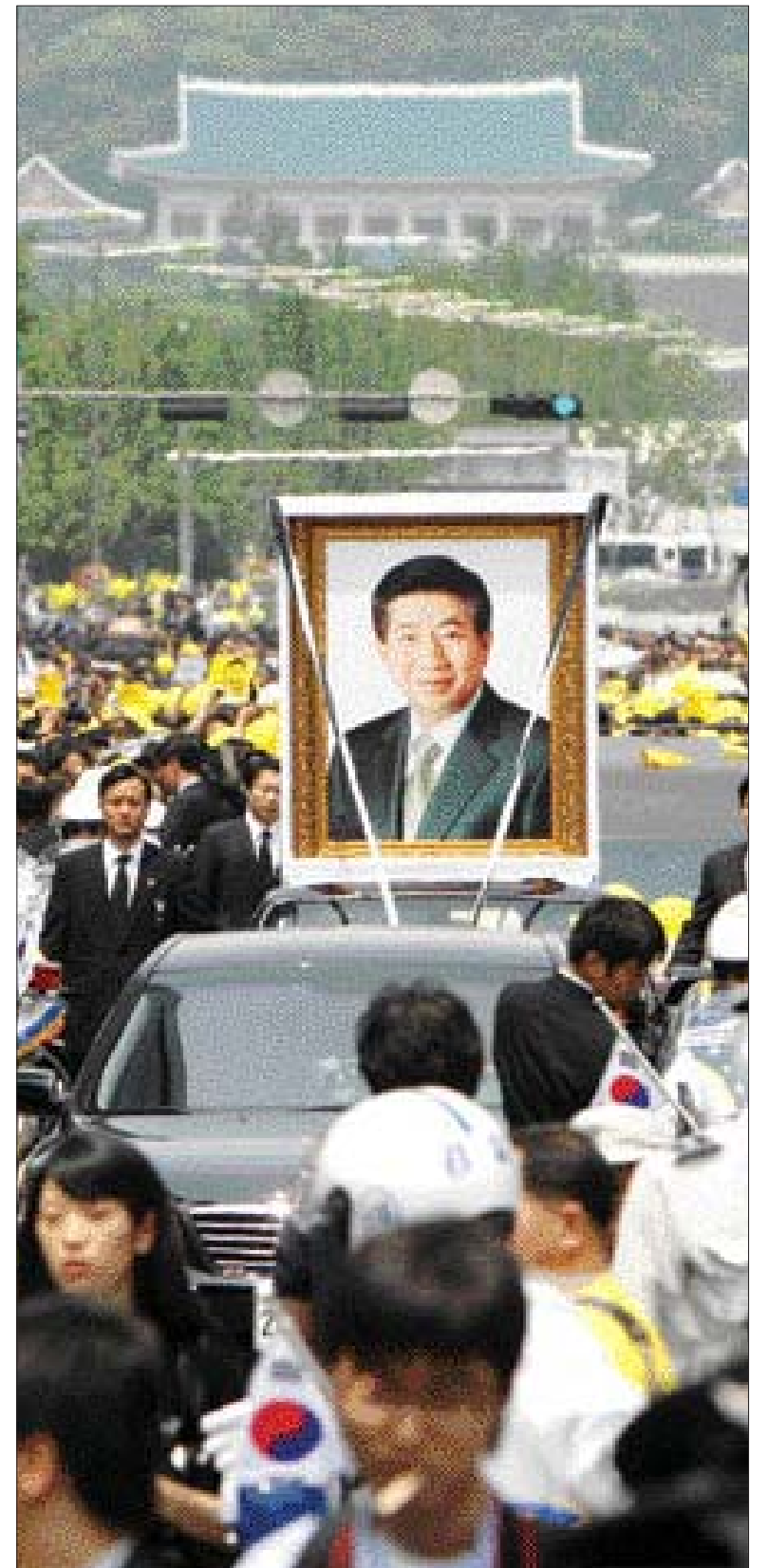


2천개 만장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추모객들이 2천여개의 만장을 배경으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.



유언대로 화장

권양숙 여사와 견호 씨등 유가족들이 뒤 따르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29일 경기도 수원 연화장에 들어서고 있다.



청와대 뒤로 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마친 운구차량이 노제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.

